

우리들의 언어가 예술이라면

글·사진 김기은(우리들의 야자수-키우기 회원)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생산적으로 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필리핀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진 우리는 호연채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로의 의견을 모으며 2020년은 다양한 세대와 주체들이 연결되는 마을공동체를 꿈꾸고, 동네 친구를 사귀는 것을 큰 틀로 잡았다. 이제 막 마을에 발을 붙였기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연결되고, 알아가고 싶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부담스럽지 않게 꺼내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서로를 환대하고 환대받는 자리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우리들의 언어가 예술이라면’을 꿈꿨다.

‘행복한 소리, 행복한 음악’의 줄임말 ‘행소행음’은 숲에서 칼림바 연주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리로 표현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행복한 순간, 행복하지만은 않은 순간’은 지나온 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여성주의 타로카드를 도구로 서로의 이야기를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풀어냈다. 단순히 타로를 읽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 숨어있는 이야기를 듣고 책 구절을 함께 읽으며 지난 나의 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마을을 돌아볼 수 있었다. 마을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을의 자원은 무엇인지. 알고 보니 근처에 다람쥐가 사는 숲이 있었고, 마을 배움터가 생겼고, 또래 친구들이 살고 있었다. 기꺼이 공간을 내어 주시는 마을 어른들을 만났고 얽매이지 않고 표현하는 아이들을 만났다. 서로가 지향하는 삶을 나누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다. 아마 우리는 계속 코로나시대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으로 행복을 나누는 모임

글·사진 신인선(마음행 회원)



2020년에는 다문화 주부들과 ‘마음행’을 해보자 마음먹었다. 5월부터 마침 인연이 있었던 고양시이민자통합센터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오란다강정 만들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어 인사도 못하고 서먹서먹했지만, 강사님을 따라 서로 도와가며 오란다가 만들고 포장하면서 회원들은 다문화 친구들이 하나라도 더 가져가 맛보도록 내어주면서 나누는 행복이 배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SNS에 오란다강정 만드는 방법을 올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6월에는 천연 양갱을 만들었고 7월에는 다문화 친구들의 음식을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러운 시기였지만, 모두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진행했다. 일본의 다이후쿠(찰쌀피에 팔랑금과 과일이 들어가는 여름 떡, 큰 복을 주는 떡이라 해 붙여진 이름) 만들기는 모두가 복을 받는 느낌이었다. 9월에는 고양시의 대표 채소인 열무로 만든 김치와 견과류가 가득한 건강약식 만들기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실습 참가자들이 재미있어했다. 회원들은 쉬운 레시피로 일산 열무를 널리 알리고, 직접 만든 건강약식을 추석선물로 나눠주어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누구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강 샌드위치 만들기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식생활에 활용도 높은 음식이어서 회원들 모두 만족해했다. 늘 시판 클럽샌드위치를 사주기만 했었는데, 클럽 샌드위치와 오픈 샌드위치를 가족, 이웃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만남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했던 ‘마음행’이 더욱 소중했다. 올해에도 더욱 건강한 음식으로 이웃과 행복을 나눴으면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절하게 응원해 주시며 챙겨주신 자치공동체센터 컨설팅 선생님의 사랑 덕분이었다. 센터의 모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